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 계시를 보는 요한의 상태

2013. 02. 2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상의 복음적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를 볼 때 요한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살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서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한 것을 눈감고 조용히 생각하니 우리 주님의 영광과 스스로 낮추심이 가슴에 파도처럼 와 닿습니다. 세상에 갇은 수옥과 멸시 천대를 당하셨는데,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답: 17절 말씀이 요한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위엄에 넘치는 모습을 본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출33:20) 요한에게 일어난 현상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요한과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다니엘도 경험했지요. 다니엘 10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단10:8,9]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비슷하지요? 다니엘이나 요한과 같은 계시 현상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신체상으로 특수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후12장에는 바울도 삼층 천에 이끌려 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계시를 완전히 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흔히 제자들을 안심시킨 것과 같이 인자한 모습과 음성으로 요한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는 강조 용법인데 “처음과 나중인 바로 나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칭호는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나타난 “알파와 오메가”와 동일한 것인데 8절에서는 하나님에게 적용되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8절 이야기

할 때 이미 나눈 내용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다고 그때 말씀 드렸지요.(사44:6) 이런 칭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부요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골2:2~4]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3:11]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2.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영원한 승리와 넘치는 위로를 약속하셨군요.

답: 그렇지요. 그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지요. 요한의 눈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두려웠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로마제국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주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지요. 영생도 천국도 다 그분 안에서 이미 성도들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곧 산 자라고 선언합니다.

3. 목사님, 이 산 자라는 선언에 특별한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산 자라고 선언하셨으니까요?

답: 예, 목사님, 산 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야기 합시다.

[계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친히 하시는 이 선언은 5,6절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친히 확인 하시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전에 죽었었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망에 속한 것들은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생명에게 삼킨바 되어 (고후5:4)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우주에서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에 다 처리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여기 산 자라는 말씀은 물론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지만 또한 창3:15절과 20절 말씀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요. 20절에는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통하여 산 자가 탄생할 것이며 그 산 자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될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 산 자의 근본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 산 생명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 있는 생명자체임을 확인하는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 있어”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음부 곧 무덤에서 부활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고 선

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8,29]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불러내시고 끝까지 아담 안에서 죽은 대로 있기로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불러내실 때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열쇠는 권리를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히2:14)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 곧 무덤도 완전히 예수께서 장악하셨다는 말입니다.

4. 예,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계시록 12:12절에 그 대답이 있지요. 읽어봅시다.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마귀는 자기가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으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아직도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세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귀는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후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눅20: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일단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직도 육체의 생명, 곧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상이 포함된 말씀이라

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민16:22, 27:16)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산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의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절하면 하는 수 없이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상태로 그들을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면 그때는 사망에게 내어주게 되지요. 그것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고전5: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음부라고 한 것은 “하데스”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을 뜻하는 말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스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음부가 지옥불이 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비유를 오해한데서 생긴 사상입니다. 그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한 것이지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영원한 불로 살라지고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5. 말씀을 하셨으니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하여 좀 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계시록 시간이라서 그냥 지나갈까요? 왜냐하면 애청자들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데요?

답: 이야기 합시다. 그것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과 관련이 있으니까, 계시록 공부하데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6.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답: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자마자 곧장 그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결정 난 사실에 대한 것을 표현하셨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7.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상황과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16장은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낸다는 것을 알고 청지기 직분을 그만 두라고 하자 완전히 직무를 인계하기 전에 자기 실속을 챙기는 청지기 이야기지요. 그런데 비유 중에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기를 위하여 지혜롭게 한다고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다음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설명하

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유명한 만큼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가장 오해가 많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16장의 두 비유의 핵심은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15장이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이고 16장은 기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청지기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 청지기가 정직하지 않게 일 처리한 것을 지혜롭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쫓겨나기 전에 쫓겨난 후에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잘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같은 주제입니다. 죽기 전에 영원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는 다시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기간뿐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때 영생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에 타서 소멸하게 되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낱말들이 조심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천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습시다. 영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불타는 곳은 음부라고 했고. 나사로가 가서 있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묻히는 무덤을 뜻합니다. 불꽃은 죽은 자들의 최후가 불에 살라지는 것을 뜻하지요. 비유를 실제적인 사실로 풀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유를 교리로 만들면 안 되지요.

8. 목사님, 결국 불의한 청지기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숨쉬고 의식이 분명한 상태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일단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비유라는 말씀이군요.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답: 맞습니다. 그리고 비유 중에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서 전도해주기를 구할 때에 비유 중의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들을 것이라고 하지요. 즉 죽은 자가 부활해서 전하면 들을 것이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어도 안 듣는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유일한 수단이 성경말씀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문을 여시고 사람을 음부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시편 9:13절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요.

[시9:13]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9.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그 순간 지옥 불이나 천국에 가는 일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지요?

답: 당연하지요. 사람이 죽는 순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9:5에는 산 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태초에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이려고 마귀와 귀신들이 죽은 자의 영혼처럼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신접한 자와 복술자와 점장이 등등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주장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사단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사후 문제에 한해서는 그들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10.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 분명히 있지요. 마태복음 13:24~30절에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뿌린 비유에서 밝혀주십니다. 이 해석을 36~43에서 해 주십니다. 이것을 맑은 정신으로 선입견 없이 정직하게 읽으면 이 말씀만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마13:24~30]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13:36~43]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세요. 명백하지요. 악한 자를 불에 넣는 때는 세상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불에 들어가는 악한 자가 없지요. 또 의인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때로 세상 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때에 의인들이 아버지 나라에 간다고 했는데, 그 때는 악인들이 불에 들어가는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확실하게 서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죽는 즉시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고통을 당한다면 오늘 가인보다 수십 배 악한 자가 죽어서 오늘 지옥에 가면 가인은 하나님께 항의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수십 배 악한데 왜 나는 저놈보다 수천 년 더 불 속에서 고생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도 공평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다가 계시록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만, 계시록의 내용과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1장에 마지막 두 구절이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잘 살펴서 이것이 그런가 확인하고 진리의 바른 길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잘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올바르게 가르쳐주시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끝에 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